

[종합·해설]

“문화전당 구역내 2천석 공연장 건립”

문화부 입장 왜 바꿨나

‘랜드마크 보완’ 지역여론 수용

**지역 문화·예술계 등 만족
설계 25% 가량 변경해야**

문화관광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2천석 규모의 종합 전문공연장 건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 여론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문화전당 설계 당선작 발표 이후, 지역 문화·예술계와 광주시, 시의회, 주민 등은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대폭 보완, 지하 위주 설계 재검토 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지난해 말부터 문화전당 당선작에 대한 수차례의 설명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지역의 반발은 여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영진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본부장이 사업을 청와대가 직접 국책사업인 문화중심 도시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최근 청와대와 문광부는 일주일에 거쳐 광주지역 문화계와 예술계, 언론계, 동구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 문광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다만 랜드마크를 보완하는 방안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양우 문광부 차관은 지난 8일 박광태 광주시장을 만나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상장을 건립을 검토

중이며, 지역 전문가들의 요구를 수용해 문화전당의 교육·연구 기능을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어소싱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혀 약간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문광부는 2천석 규모의 종합 전문공연장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지역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만족스런 입장이다. 2천석 규모의 종합 공연장은 오페라·뮤지컬·연극·발레·쇼 등 국제 수준의 대형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요면적과 전당 설계안을 고려할 경우, 문화전당 건립 부지 내 남도문화예술회관·농협 터를 대상으로 한 7천800평이 전문공연장의 위치로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 전문가들은 전문공연장이 2천석에 이르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건립시 건축의 외형미를 강화한다면 랜드마크 논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문화부도 전문 공연장 건립과 랜드마크 보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경우 지하설계를 지상설계로 변경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공연장에 랜드마크를 가미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모두 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씨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규승씨는 수차례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설계의 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현황도



본 틀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여론에 따라 설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문광부와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공연장 건립시 설계의 25% 가량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규승씨가 설계 변경을 거부할 경우 전문 공연장 일부만을 대상으로 설계 제공모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 파악했다. /제작자: chae@kwangju.co.kr

2012 여수박람회
100만인 서명운동
적극 동참합시다

사이클 릴레이 홍보 이틀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이클 릴레이 홍보 및 서명이 20일로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방문자마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는 등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첫 순방지인 진도군청 앞에 홍보단이 도착하자 군청 직원 300여명이 자전거 행렬을 반갑게 맞으며 “2012 여수엑스포 온 도민의 힘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 또 진도지역 성인들로 구성된 브리스밴드 ‘진악회’ 회원들이 흥겨운 주의를 선사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오후 1시 완도군청 앞에서 진행된 릴레이 서명식에서는 김종식 군수와 군청 직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홍보단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여수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고자 다짐했다.

강진과 장흥에서는 지역 자전거 동호인과 생활체육협회원들도 자발적으로

진도~완도~강진~장흥 뜨거운 환영 열기속 서명 줄이어



박언수 진도군수가 20일 군청 앞 광장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지 서명을 하고 있다. /위치기자 jrwi@kwangju.co.kr

릴레이 홍보에 나서 주민들의 서명을 이끌어 냈다. 자전거 홍보단과 동호인들은 2012 여수박람회 개최로 인근지역의 관광효과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지지서명 참여를 촉구했다. 홍보

단이 시가지를 행진하는 동안 주민과 학생들은 2012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애쓴다며 손을 흔들어 격려했다.

지난 2002년 201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이번과 똑같은 코스에서 자전거 흥

보를 벌였던 문종호(39) 자전거 사랑전국연합회 회장은 5년 전보다 활성 열기로 높아며 박람회 개최 가능성 을 높게 점쳤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김홍업씨 결국 민주 후보로

黨 공특위, 오늘 후보 영입 전략공천 의결

일부 의원·예비후보들 “무소속 출마” 반발

4·25 무안·신안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홍업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민주당의 영입 제의를 받아들여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1일 공특위(공직후보자선정특별위원회)를 열고 김홍업씨를 민주당 후보로 영입,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마친 일부 예비 후보들은 “김홍업씨의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지역 여론도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이상열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녹녹치 않은데다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마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도 김씨의 전략공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 민심이 김홍업씨의 출마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남도당위원장이 이상열 의원은 단순하게 보면된다”며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홍업씨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전략공천 제의를 한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민주당 출마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김씨의 핵심 측근도 이날 “권노갑 전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민주당 출마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인=이원기자 whlee@

정상회담 교감 있었을까

노대통령 오늘 이해찬 면담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해찬 전 총리를 면담해 방북 성과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20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7~10일 방북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논의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내용을 노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할 예정이다.

특히 북핵 2·13 합의 이행의 급속한 진전 분위기에 따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정부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마음의 길까지

이어집니다



ex